

# ‘의대 열풍’ N수생에 변수 많은 수능되나

올 수능 11월 14일 실시

평가원, 킬러문항 철저히 배제  
EBS 출제 연계 간접방식 유지  
수능 원서접수 8월22일~9월6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주로 치르게 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4일 시행된다.

출제 당국이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대 증원에 따른 ‘N수생’ 확대가 난이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지난 30일 공고했다.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은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는 N수생이 얼마나 가세할지, N수생의 증가가 난이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

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작년보다 1509명을 늘리기로 하면서 ‘의대 열풍’이 더 거세지면서 입시업계에서는 N수생이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학력 수준이 고3 재학생보다 더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물수능’을 피하기 위해 평가원이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크다.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는 평가원의 방침에도 실제 체감 난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수능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작년과 같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 직업 탐구 영역에선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로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이 유지된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해 출제된다.

연계를 자체는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변경은 시험지구별로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를 응시할 경우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전제지번,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수험생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 전남교육청, 광복회 전남지부와 독립운동 교육

전남교육청이 광복회 전남지부와 독립운동 정신 선양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지난 28일 열린 협약식은 김대중 도교육감과 광복회 전남지부를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족정기와 위대한 독립운동 정신을 학생들에게 선양해 우리 겨레의 미래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민족정기와 독립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자료 및 역사기념물과 인적 자원 공유 및 교류 ▲교사 연수와 학생 교육자료 제작 ▲매년 경술국치일 행사 ▲두 기관의 교류 및 공동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인정 광복회 전남지부장은 “광복회는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헌신해 온 단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바람직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복회 전남지부와 협력해 통해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역사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대 ‘광주형 글로컬 연구재단’ 신설 추진

글로벌대학30 사업 지속가능성 담보 위한 재정적 지원 전담

전남대학교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동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연구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는 “기존의 대학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대학 간의 집단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된 재원들을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주형 글로컬 연구재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재단은 혁신 사업들의 재정적 지원을 확고히 하는 한편, 교육·연구 인프라와 관련 플랫폼의

개발 및 지역 내 공유로 지자체, 지역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족한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실제로 글로벌 대학 30의 사업 기간인 5년 내에 혁신을 완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혁신적인 대학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대학이 먼저 자체 예산 30억 원을 투입하고, 자·산·병·연의 출연금 20억과 글로벌대학 30 사업예산의 5%인 50억을 출연해 모

두 100억 원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글로벌사업 30대학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예산을 추가하고 거버넌스의 다양한 기금·모금활동을 통해서 기금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AI 융복합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설치 ▲보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안정적 보급 ▲연구지원체계 구축 지원 ▲전문 교육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 ▲융합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고급 인재 양성 등을 6대 수행과제로 내세웠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광주형 글로컬 연구재단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학 연구 기금으로, 기존의 대학 재정으로는 수행할 수 없던 많은 혁신 사업들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대, AI에듀테크 선도대학으로 도약 준비

GPT 활용한 AI 교육...교육 현장에 효과적 적용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GPT를 활용한 AI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목표로, 교직원들이 최신 AI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이번 교육은 사전 접수한 50여 명의 교직원에게 GPT를 활용한 연구분야, 업무자동화 등의 실습 기회를 제공했으나 향후 전 교직원 및 학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AI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진 총장은 “AI는 미래 교육의 핵심 요소로, 교직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AI 기술이 교육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평가하며, 광주대가 AI 교육의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대 대학혁신사업단(단장 박경중)은 AI에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에듀테크센터’를 구축해 교



직원과 학생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박경중 대학혁신사업단장은 “AI 에듀테크센터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최신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교육 및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 언어·직무능력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취업 위한 K-Move스쿨 운영  
美 캘리포니아주 현지기업과 연계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돼 올해도 K-Move스쿨 연수 과정을 시작했다. 1일 밝혔다.

K-Move스쿨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해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언어 능력, 직무 스킬을 갖춘 지역 정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대는 2014년부터 10년째 원어민 교원과 질 높은 커리큘럼,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K-Move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지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사후관리, 기업체 발굴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조선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시는 현지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활성화와 미국 대학과의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선대 강진희 취업지원부처장과 박준서 취업전략팀원은 K-Move스쿨 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활발한 인턴십 운영과 국가 및 기업 간 적극적 교류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